

“스물다섯, 내 이야기”

아이유, 3년6개월 만에 정규 4집 '팔레트' 발표

가수 아이유(24)가 21일 오후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판스퀘어라이브홀에서 정규 4집 '팔레트'의 타이틀곡 '팔레트'를 부르는 순간 그녀의 진심을 알 것 같았다.

올해 한국 나이로 스물다섯이 된 아이유는 이날 열린 청음회에서 “스물다섯 살의 저를 생각할 때 저에 대해서 알 것 같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알게 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고 웃었다.”

신스팝 장르인 '팔레트'는 스물다섯 아이유가 털어놓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정한 시각으로 담아냈다. “가수로서 저를 아는 분들이 많아지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책임감도 빼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리를 낸다고 생각할 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라고 강조했다.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명이 됐지만 아이유의 가요 인생은 변곡점이 많다. 낮가림이 심해 자신을 드러내기 힘들었던 연습생 시절부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모티브로 삼은 수록곡 ‘제제가’ 5세 소년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던 지난 미니앨범 ‘첫서’(2015), 그리고 인디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리더 장기하와 결별까지 높아진 인기만큼 이슈를 몰고 다녔다.

하지만 청중의 열병을 치유한 무대로 평가 받는 지난해 12월 단독 콘서트 ‘스물네 걸음 : 하나 둘 셋 넷에서’ ‘요즘 많이 밝아졌고, 튼튼해졌어요. 지금 제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라고 웃었던 그녀인 만큼 이날 역시 편안해보였다.

“‘팔레트’는 (‘첫서’ 수록곡인) ‘스물셋과 맥을 같이 하는 곡이에요. 다만 스물셋에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라는 식으로 극과 극의 다른 걸 솔직하게 드러냈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좋아요’라고 제가 좋아하는 건 짝이 될 수 있는 저에 대해 알 것 같은 주관이 생긴 거죠”

정규 앨범만으로 따지면 무려 3년6개월 만에 내는 정규인 ‘팔레트’는 그림을 그릴 때 여러 때 물감을 풀어서 조합하는 데 쓰는 회화기구를 가리키는 원 뜻처럼 다양한 색깔의 곡을 담았다.

아이유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보다 팔레트에 더 관심을 갖고 예뻐했다”며 “팔레트는 도구지만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정규 앨범인 만큼 그림을 다 그려서 보여드리기보다 팔레트 자체를 공개하고 싶었다”고 했다.

‘첫서’에 이어 자신이 두 번째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스스로도 마음에 들고 자신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웃었다. “‘첫서’는 미처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팔레트’는 정규앨범이기도 하고 시간도 꽤 가진 앨범이라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실제 이날 미리 공개한 앨범 수록곡들은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했다.

무엇보다 힘을 보탠 뮤지션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팔레트’에서는 한류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랩 피쳐링을 했다.

“지드래곤 선배님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편이었어요. ‘팔레트’라는 곡을 만들 때 작사, 작곡 과정에서 조언을 구했어요. 본래 피쳐링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뒤 (주요 멜로디를 이어주는) 브리지에 멜로디보다 랩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가사를 이미 알고 계시고 트랙과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지니 적합한 것 같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OK를 해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SBS TV ‘K팝스타’ 출신 샘 김이 작곡한 ‘이런 엔딩 뮤직 비디오에는 한류스타 김수현이 출연하기도 했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팝 발라드 ‘히름에게’는 아이유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작곡가 이종훈이 작곡하고, 아이유와 유명 작사가 김이나가 공동작사했다.

앞서 선공개해 음원차트 1위를 휩쓴 ‘사랑이 잘’은 밴드 ‘혁오의 보컬 오혁, 재기발랄한 일렉트로닉 신스팝 트레인 ‘짱짱’에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절제된 발라드 ‘마침표’에 참여한 작곡가 겸 색소폰 연주자인 손성제, 클래식한 느낌의 발라드인 ‘그렇게 사랑’에는 듀오 ‘어떤 날’ 출신의 영화 음악 감독 이병우 등이다.

특히 이병우와 작업한 ‘그렇게 사랑’은 ‘녹음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읊조렸다. “이병우 선생님께 여러번 요청을 해서 어렵게 제 품은 넣은 노래예요. 근데 녹음 과정이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어요. 보통 요즘 녹음은 MR(반주음악)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서 노래를 여러번 부르고 끊어 가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연주와 함께 원테이크로 갔



가수 아이유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신한카드 판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열린 정규 4집 앨범 'Palette(팔레트)' 쇼케이스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어요. 여러 번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매번 템포, 호흡이 달라지고, 이 병우 선생님 목소리도 들어가게 됐죠. 이런 녹음 방법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앨범에서 다양한 뮤지션들과 협업한 이유는 “저를 채우기 보다는 곡을 받아서 만든 앨범을 작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것이 구현이 돼 만족해요. 작업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저라는 가수의 강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하시는 대로 아이유라는 사운드를 찾아줘서 의미가 있어요”

2008년 ‘비아로’ 데뷔한 이후 어느덧 벌써 10년차가 됐다. “똑같이 어색한 부분은 아직도 어색하고 능숙해진 부분은 아직 없다”고 웃었다. 다만 “그 때랑 달라진 점은 저라는 사람을 잘 알아주는 스태프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기운 넘치고 밝은 신인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날 오후 6시 앨범 수록곡 전곡이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는데 이른바 1위부터

휩쓰는 ‘줄 세우기’를 예고하고 있다. 선공개곡인 ‘남편지’와 ‘사랑이 잘’은 이미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음원퀵이라는 명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음원퀵들인 ‘씨스타’ 리더보컬 효린 ‘다비치’ 멤버 이혜리 역시 선방하고 있다.

이날 사회를 본 김일중 전 SBS 아나운서가 ‘장미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수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걸출한 가수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경쟁에 참가하는 선수라는 점도 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음원시장의 파이와 대중 음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라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가요계에 관심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요”

‘음원퀵’이라는 수식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근사한 말이라서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저에게 주시는 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겸손해 했다.

/뉴시스

익산 곳곳 주말 체육대회 열기 후끈

4월22일~23일까지 익산시에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려 스포츠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제8회 익산시 배드민턴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익산시 배드민턴협회 주관으로 김동문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200여명이 참여하여 기량을 겨루며 친선과 화합을 도모했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멋진 승부를 펼치면서 순위와 관계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제5회 익산시장애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식과 클럽 단체전은 4월 22일 익산시 테니스협회 주관으로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및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다.

22일에 열린 클럽 단체전에서는 금배부 10팀, 은배부 12팀, 동배부 28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후회 없는 멋진 승부를 펼쳤다.

앞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정현을 익산시장은 대회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과 동호인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이리여고 전국 펜싱대회 개인전·단체전 우승

이리여고고등학교가 최근 강원도 양구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3회 한국중·고연맹회장배 전국중·고연맹회장배 전국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 여자고등부 사브르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 및 단체전경기에서 역전을 거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 출전한 3학년 홍하은 선수는 첫 게임 32강전 상대인 서울체육고 15 : 2, 16강전 안산상륙고 15 : 4, 8강전 대전충흥고 15 : 9, 준결승 전남과학기술고 15 : 12, 결승전은 전남과학기술고와 15 : 14로 역전승했다.

지난 3월 대한펜싱협회장배와 한국중·고연맹회장배를 연이어 우승의 쾌거를 일구었다.

1학년 선수 2명과 23학년 각각 1명씩의 선수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저학년 선수들이지만 강한 정신력, 협동심과 투지를 발휘하여 개인 및 단체전에 우승을 하였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푸른솔초, 교육장기 육상대회 종합우승

군산푸른솔초등학교는 최근 군산월명경기장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초중학교 육상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푸른솔초는 이날 남녀 모두 80m, 100m, 200m, 800m, 400m 계주와 멀리뛰기,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등 전 종목에 걸쳐 19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자 80m 2위, 남자 100m 1위, 여자 200m 1위, 남자 800m 1위, 400m계주 남녀 1위, 멀리뛰기 남자 2위, 높이뛰기 남녀 1위, 포환던지기 남자 3위를 차지하며 종합우승을 거머 쥐었다.

최병화 교장은 “이창활동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땀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기쁘다. 우리가 매일 실시하는 아침 건강달리기와 종합 우승의 밑거름이 된 것 같다. 지난 두 달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학생지도와 훈련에 임해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덕분이다”고 격려했다.

/군산=장현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